



내가 그대들의 방과라네!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30호

2020. 11. 27.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

2020년 한마음 단합대회 경과 보고

19대 노동조합과 대학 당국은 총장 주관의 ‘한마음 단합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한마음 단합대회’를 유보하고 총장 격려품을 지급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한마음 단합대회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행사이기에 많은 기대를 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 기념품은 하나의 품목만 선정해서 지급했던 방식에서 다수의 품목 중 개인이 자율 선택하는 방식으로 연말연시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총장 격려품과 별도로 문화행사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근황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2020년 휴양지 경과 보고

노동조합은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견해 지난 여름부터 코로나 특별 근무로 고생한 직원과 교원을 위해 휴양지 예산 약 2억 원을 전용해서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11월 12일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는 그 대안으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교직원들에게 휴양지 예산을 환원해 줄 것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학 당국이 난색을 표해 진전되지 못하였고 겨울 휴양지마저 취소되었다. 대학 당국은 내년 휴양지 예산의 증액 편성을 제안하며 우리의 복지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약속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내년을 기약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교직원들은 대학의 모습과 서비스 영역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여전히 작년 그대로 남은 것은 교직원을 위한 복지 제도다. 대학 당국 역시 코로나 발생 이후의 사회상을 반영해 우리의 복지 제도를 바꾸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내년에 증액될 휴양지 예산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또 미집행 되는 일 없이 반드시 내년에 집행 완료되도록 넓은 시각과 장기적 안목으로 대학 당국과 대안적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